

애플, 구글과 정반대 행보 “앱마켓 수수료 30%→15% 인하”

중소개발사에 양질의 앱 개발 지원
내달 초 프로그램 관련 내용 발표
“중소 개발자, 글로벌 경제 중추”



구글이 내년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가운데 애플은 현재 30%인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해 구글과 다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구글이 내년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가운데 애플은 현재 30%인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해 구글과 다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사 앱스토어 유료 앱과 인앱 결제 관련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중소 개발사의 범위는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약 11억4500만원) 이하인 곳으로 정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수수료 30%를 걷어왔다.

애플의 팀 쿡 CEO는 “중소 규모 개발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중추이자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살아 움직이는 중심”이라며 “중소 개발자들이 우리 고객이 사랑하는 양질의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모

도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급기야 인터넷 기업과 창작자가 모인 8개 단체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올바른통신복지연대, 시민안전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저작권자, 제작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며 구글과 애플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인앱결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하나여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조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선택을 강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서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쌍용차 올 뉴 렉스턴.

웅장함 유지하고 젊은 감성 + 100km 가속에도 답답함 제로



쌍용차 ‘올 뉴 렉스턴’

5500대 계약, 초반 흥행 성공
최고출력 202마력·토크 45.0kg·m

쌍용자동차가 야심차게 출시한 ‘올 뉴 렉스턴’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모델 노후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쌍용차가 가수 임영웅 효과와 파격 디자인을 적용한 올 뉴 렉스턴 출시로 회사 경영 정상화에 청신호를 쬐었다. 이를 통해 쌍용차는 한때 ‘SUV 명가’로 불렸던 회사의 자존심 회복에도 나선다.

쌍용차 올 뉴 렉스턴은 5500대가 계약되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덩치가 큰 대형 SUV임에도 30대 젊은 층과 여성 고객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시승을 통해 만난 올 뉴 렉스턴은 쌍용차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다.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등 프레임은 제외한 많은 부분에 변화를 줬다. 디자인은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를 키우고, 패터닝 변화를 주면서 세련된 느낌을 준다.

실내 공간도 고급스러움이 묻어난다. D컷 스티어링휠(아랫부분 립을 수평 모양으로 만든 스포츠용 스티어링휠)은 운전자에게 편안한 그림감을 제

공한다. 각종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도 기능에 맞게 잘 배열돼 있다.

변속레버는 BMW처럼 전자식 노브로 바뀌었다. 사용 방식도 비슷한데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주차(P) 상태로 바뀌준다.

올 뉴 렉스턴 엔진은 2.2리터 4기통 디젤 엔진과 현대트랜시스 8단 자동변속기가 결합됐다. 이를 통해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 성능을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11.6km/L로 이전 모델보다 약 10% 정도 향상됐다.

본격적인 주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 영종도 일대를 1시간 가량 주행했다. 현대트랜시스의 8단 자동변속기는 저속·저회전의 실용영역에서 토크감이 좋고, 급가속시 변속할 때에도 반응성이 뛰어나다. 구동계가 바뀌니 여전히 육중한 몸집이지만 민첩한 움직임을 보였다. 고속 구간에서도 시속 100km 이상 가속해도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또한 쌍용차가 이전에 출시한 모델들은 핸들이 가볍다는 느낌이 강해 고속 주행에서 부담스러웠지만 올 뉴 렉스턴의 핸들링은 묵직함이 느껴졌다. 불규칙한 노면과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이 느껴졌다.

올 뉴 렉스턴의 가격은 엔트리인 럭셔리가 3695만원, 프레스티지 4175만원, 더 블랙 4975만원이다. 더 블랙은 파트타임 4륜구동(4WD)이 기본 적용되고, 다른 투 트림의 경우 193만원을 추가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자동차그룹, 8개 기관·기업과 수소사회 구현 속도

그린 수소밸류 구축 공동연구 추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수소 연계



김우섭 수소에너지 대표(왼쪽부터), 박찬우 현대엔지니어링 인프라산업개발본부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허재철 LG전자 한국사업본부 B2B그룹장, 오재혁 현대자동차 에너지신사업추진실장, 송영선 현대차증권IB본부장이 1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그린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기관·기업이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통한 수소 사회 구현에 속도를 낸다.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증권과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LG전자, 한국서부발전, 수소에너지는 19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그린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8개 기관과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ESS), 수전해 시설,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연계한 그린 수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수소는 화석연료로부터 추출한 ‘그레이 수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한 ‘블루 수소’,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는 ‘그린 수소’로 구분된다. 특히 그린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원으로 삼아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새만금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 사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

고 있다.

협약 주체들은 ▲수소 생산을 위한 전력 공급 ▲그린 수소의 생산 ▲그린 수소의 활용 등의 역할을 맡는다. LG전자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력을 생산하고, 수소 에너지는 공급받은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물전기분해(수전해)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전해 시설을 비롯해 통합적인 수소 생산 플랜트 시설을 구축한다.

현대차는 연료전지 기술과 발전 설비를 통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바탕으로 전력을 만들고, 한국서부발전은 생산된 전력을 다양한 에너지 수요처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돕는 한편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

청하고,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증권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조달과 그린 수소 사업의 밸류체인 분석과 타당성 검증을 맡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련된 ‘그린 수소 밸류체인 사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달성하고 그린 수소로의 전환과 신사업 창출, 새만금 지역의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민관이 뜻을 모아 마련한 이번 업무 협약은 수소 에너지 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서 “현대차그룹은 수소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 보급 확대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U+, 빅데이터 기반 사회공헌 본격화

취약계층에 교육·보안서비스 지원

LG유플러스는 성남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인천 미추홀 형제아동 화재사건 등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취약계층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남시 거주 취약계층 100가구를 선정한다. LG유플러스는 뽑힌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학습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 ‘U+초등나라’ ‘서비스와 스마트 패드, 가정 보안 서비스 ‘우리집 지킴이 Easy’를 내년부터 3년간 무상 지원한다.

또 성남시가 운영중인 대학생 봉사단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접목, 취약계



18일 오후 성남시청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드림스타트 아동 생활안전 및 교육서비스 추진 업무 협약식’에서(왼쪽부터)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은수미 성남시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총괄 사장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층 학생들에게 ‘교육+돌봄+안전’ 융복합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